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9(土)	20(日)
흐리고 비 25/29℃	비 25/27℃

News

- 국립 광주과학관 '탄력' ②
- 탄소은행 가입 아파트 ③
- KIA 태풍 갈매기 덕 불까 ⑧

Books

- 영옥의 태평양 문명사 ⑭

Entertainment

- 일지매 '쇠들' 역 이문식 ⑧
- '남자영화' 전성시대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상항버섯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광주에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3년 설립 / 1997년 개교 / 2008년 개교

새로운 명문대학

전남과학대학
1987년 설립 / 2008년 개교

■ 광주·전남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인 지원단 '금요집회' 한 돌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전쟁 향수 못잊은 탓”

“독도문제를 일본 교과서에 게재한 것은 그동안 한·일 우호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고야 '미쓰비시사(社)'로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했던 광주·전남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판 '금요집회'가 18일 1주년을 맞았다.

한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데는 피해자들의 가족도, 재일교포도 아닌 순수 일본인들의 도움이 컸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회장 다카하시 마코도·이하 지원회)'과 '변호단' 소속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비용과 체류비용 등을 조달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 회원은 최근 일본의 독



18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인 회원 30여명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유족회' 이금주 회장(휠체어 탄 이)과 함께 1주년 기념 '제46회 금요집회'를 열고 있다. (나고야 소송 지원 모임 제공)

주부·교사·학자 등 1,200여 명 회원들 日 정부 독도 망동에 우호 깨질까 착잡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서 '日 양심' 일깨워

도 영유권 주장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착잡한 심경을 털어냈다.

이날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열린 1주년 기념 '제46회 금요집회'에 참석한 고이데 유타카(66) 지원회 사무국장은 “일본정부가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독도문제로 인해 그동안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인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회는 양금덕(80·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시절 광주·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돕고 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인당 3천만엔(현재 2억4천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6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할머니들은 이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고, 지원회는 이때부터 최고재판소와 미쓰비시를 압박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회원 10여 명이 참가하는 '원정집회'를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서 열고 있는 것이다.

나고야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신칸센을 타고 도쿄까지 왕복하는 거리만 720km. 1년간 지구 한바퀴 거리와 맞먹는 3만7천 440여km를 이동하며 시위를 벌인 셈이다.

“지원회”가 한국 할머니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1심 소송이 시작된 지난 1999년 3월부터다. 내년 3월이면 소송기간도 ‘지원회’ 활동기간도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노동자와 주부, 학자, 교사, 시민단체 회원 등 양심적인 일본인 1천200여 명이 지원회에 가입돼 있다.

특히 이들은 활동비와 할머니들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 3천엔씩(한화 2만9천 원 상당) 회비를 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할머니들도 “지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10년 가까이 소송을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이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장이 이금주(87) 할머니는 1주년 집회에 직접 참석해 “국내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일본사람들로 이뤄진 지원회는 물심양면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너무나 큰 은혜가 정말 백골난방(白骨難忘·죽어서도 잊지 못함)이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與 “독도 동·서도 매립”

주거 시설 건립 추진 ... 민간인 상주 늘려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성관광 재검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 국가 주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군 당국이 잇따라 강경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8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독도에는 2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박시설의 추가 건립을 통해 더 많은 민간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5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독도 경비병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당국은 ‘독도 사태’가 발생하자 올해 독도수호훈련을 예정대로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공군과 해군이 참가하는 독도수호훈련을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예정대로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사태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강산 피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에 상주하는 수천명의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당국자를 북한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의 상황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진상조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21일 태풍 갈매기 영향권

광주·전남지역은 주말과 휴일 북상하는 7호 태풍 ‘갈매기(KALMAEGI)’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광주·전남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9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갈매기’는 18일 오후 3시 현재 대만 타이페이 북북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약 19km로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 99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 23m/s(83km/h)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은 20일 오후 3시께 서귀포 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광주·전남지역이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9일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휴일인 20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



된다”고 예보했다. 19일 예상 강수량은 20~60m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상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최고의 피부 케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IOPE